



트레이드 렌즈

TRADE LENS

투자에 초점을 맞춘다.

COMPANY RESEARCH / No.05

원전 제조의 사업성과 현금흐름을 읽는 리서치

두산에너지빌리티 SMR 수주는 언제 매출이 되나

TerraPower·Rolls-Royce에서 실제 기자재 매출까지,
원전 르네상스의 현금화 조건

설계 협력 → 제작 발주 → 계약 이행 → 현금 회수

발전소 가동일, 매출 인식일, 수금일은 같은 날짜가 아니다.

제작 계약은 현실이 됐다.
매출은 계약 이행에서,
현금은 수금 조건에서 결정된다.

개발사의 발전소 계획을 회사 수주로 합산하지 않는다. 미공개 SMR 계약금액·연도별 매출·마진은 추정하지 않는다.



01 / RESEARCH VIEW

제작 계약은 현실이 됐다. 다음은 이행과 수금이다

TradeLens 판단 | 발전소 가동일보다 공급 범위·계약 이행·수금 조건을 먼저 본다.

핵심 결론

두산에너지빌리티의 SMR 사업은 일부 과제가 설계 협력에서 실제 기자재 제작 계약으로 넘어갔다. 이는 사업화의 진전이다. 다만 TerraPower 제작 계약과 Rolls-Royce SMR의 사전제작 참여를 같은 확정 수주로 합산해서는 안 된다. 매출은 각 수행의무의 이행에, 현금은 청구·선수금·회수 조건에 달려 있다. [1] [2] [13]

핵심 질문

이 보고서의 답

SMR 수주는 언제 매출이 되나

계약이 성립하고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다. 기간 인식 요건을 충족하면 발전소 가동 이전에도 가능하다.

왜 두산에너지빌리티인가

원전 주기기 제작 경험을 여러 개발사의 공급망으로 확장하는 사업모델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아직 다른 단계인가

개발사의 발전소 계획, 전략 공급사 선정, 개별 부품 발주, 현금 회수는 별도 단계다.

무엇으로 판단하나

실제 제작 착수·공정 검수·후속 발주·충원가·미청구공사·선수금과 수금의 연결을 본다.

성장의 증거와 이익의 증거를 나눈다

첫 제작 계약은 공급망 진입의 증거다. 이후 이익구조는 초도 제작비를 회수하고, 반복 발주로 학습효과를 쌓으며, 설비·운전자본 투입보다 현금 회수가 충분한지에 따라 달라진다. 본 보고서는 시장규모나 발전소 수를 회사의 매출·이익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독자에게 남길 판단 기준

SMR의 기회는 발전소가 아니라 계약 단위로 읽는다. 같은 수주라도 책임 범위와 수금 조건이 다르면 두산에너지빌리티에 남는 경제적 효과가 달라진다.



02 / FINANCIAL BASE & SCOPE

26조원의 수주잔고는 SMR 매출이 아니다

2026년 상반기 회사 발표 기준. 연결 손익과 에너지빌리티 부문 수주를 서로 다른 범위로 구분한다.

지표	2026년 상반기 / 6월 말	자료의 범위
매출	8조 9,859억원	연결 전체 · 전년 동기 +8.0%
영업이익	5,478억원	연결 전체 · 전년 동기 +32.4%
영업이익률	약 6.1%	$5,478 \div 89,859$ · TradeLens 계산
신규 수주	7조 1,225억원	에너지빌리티 부문 · 해외 자회사 포함
수주잔고	26조 3,509억원	에너지빌리티 부문 · 기간말 잔액

출처: 회사 실적발표를 인용한 뉴시스 보도 (2026.07.27). 손익은 반기 누계, 수주잔고는 6월 말 잔액이다. 발표 수치를 표시 단위로 사용했다. [12]

연결 전체

밥캣 등 자회사 포함

에너지빌리티 부문

발전설비·서비스·EPC

SMR 개별 계약

역무·원가·수금 별도

현재의 실적 기반과 새로운 사업의 가치를 구별한다

상반기 주요 수주에는 가스터빈 7기, 사우디 자푸라와 오만 두쿰 발전소, 가스터빈 장기서비스가 포함된다. 연결 이익에는 발전설비 사업과 두산밥캣의 실적이 함께 반영된다. 이 숫자들을 SMR 수익성의 증거로 바꾸어 읽을 수는 없다. [12]

재무 분석의 출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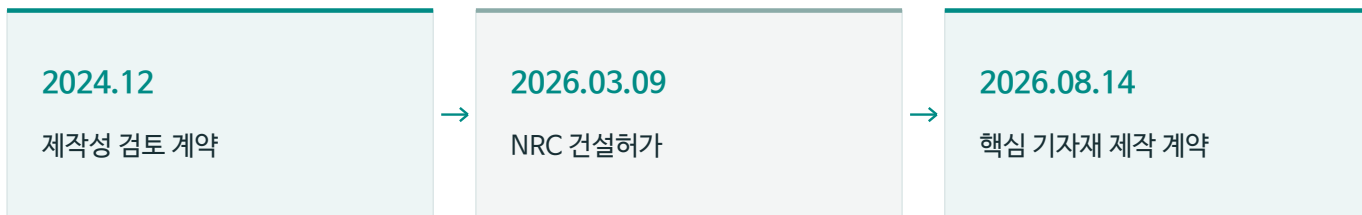
기존 사업의 매출·이익은 SMR 투자를 진행할 사업 기반이다. 그러나 연결 이익은 모회사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이 아니고, 큰 수주잔고도 납기·원가·수금이 확정된 현금자산은 아니다.



03 / TERRAPOWER: A MANUFACTURING ORDER

TerraPower: 설계 검토에서 제작 발주로 넘어갔다

프로젝트 전체가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가 계약한 기자재의 범위를 본다.



회사는 8월 14일 Natrium 초도호기용 원자로 보호용기, 지지구조물, 내부구조물의 제작 계약을 발표했다. 2024년 검토 계약 이후 설계 개선을 통해 제작 발주가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Kemmerer Unit 1의 건설허가는 NRC가 3월 9일 발급했다. [1] [3] [4]

구분	회사에 연결되는 의미	확대 해석하지 않을 점
보호용기·구조물	실제 제작 업무가 부여된 범위	발전소 전체 또는 모든 원자로 계통의 독점 공급
제작성 검토의 축적	설계와 제작공정의 접점에서 경험 확보	과거 검토비와 신규 제작계약의 동일 매출 처리
초도호기 참여	공정·검사·납품 실적을 쌓을 기회	후속 모든 호기의 자동 발주 또는 동일 마진
건설허가	개발사업의 주요 이정표 통과	운영허가·상업운전·공급대금 회수의 완료

핵심은 “언제 가동하나”보다 “언제 무엇을 이행하나”다

제작·검사·출하 일정과 지급 조건이 매출과 현금의 달력을 만든다. 발전소의 상업운전은 그보다 뒤에 올 수 있다. 반대로 건설허가가 있어도 발주 변경·제작 지연·검사 재작업이 있으면 공급자의 수익과 수금은 늦어진다.

TradeLens 해석

이 계약은 SMR 사업을 단순한 협력 가능성으로만 볼 수 없게 한다. 다만 공개된 제작 범위를 넘어서는 계약금액·연도별 매출·이익률은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



04 / ROLLS-ROYCE SMR: SCOPE BEFORE SCALE

전략 공급사 선정과 전체 물량 수주는 다르다

2026년 5월 사전제작 계약에 9월 현지화·부품별 발주 동향을 더해 읽는다.

확인된 계약 단계

5월 27일 Rolls-Royce SMR은 두산에너지빌리티와 Škoda JS를 전략 공급사로 선정했다. 발표 범위는 원자로 압력용기 본체 등을 위한 사전제작 업무, 설계 완성, 제작 준비다. 이원 공급 체계와 영국·체코 현지화도 명시했다. [2]

발표	사업 단계	두산 분석에서의 의미
4월 13일 · Wylfa	초기 3기 부지별 설계·조달 추진 계약 [5]	개발사 프로젝트 진척이지 두산의 3기 일괄 수주가 아님
5월 27일 · 공급사	두산·Škoda JS의 사전제작 참여 [2]	품목별 설계·공정 확정 이후 제작 발주를 구별
9월 16일 · 공급망	향후 1년 최대 £1.4bn 계약 기회·영국 조달 70% 초과 목표 [6]	영국 프로그램 목표이지 두산 매출의 배분율이 아님
9월 23일 · 부품 발주	ŠKODA JS 제어봉 구동장치 설계·공급 [7]	같은 개발사 안에서도 계약 상대와 품목이 다름

현지화는 해외 공급사의 전면 배제를 뜻하지 않는다. 반대로 전략 공급사라는 명칭도 모든 품목의 장기 독점을 보장하지 않는다. 두산의 역할은 공급 범위, 현지 협력 방식, 기술·품질 책임과 다음 제조 발주의 조건으로 평가해야 한다.

현금화의 관문

후속 분석의 기준은 발표된 발전소 수가 아니라, 두산에 실제로 발주된 품목·계약의 구속력·제작 착수·청구 일정이다.



05 / THE THREE CLOCKS

발전소·매출·현금은 서로 다른 시계로 움직인다

단계는 연결되지만 동일 시점에 끝나지 않는다. 아래는 계약 분석의 개념도다.

사업 시계 부지·허가·자금·건설·가동	매출 시계 계약·수행의무·통제 이전	현금 시계 선수금·청구·유보금·수금
--------------------------------	-------------------------------	-------------------------------

계약 단계	매출과의 관계	현금과의 관계
협약·공급사 선정	그 사실만으로 매출은 아님	선수금 유무를 별도 확인
설계·제작성 용역	유상 계약의 수행에 따라 별도 매출 가능	용역대금의 검수·청구 기준
기자재 제조	기간 인식 또는 통제 이전 시점 판단	계약상 중도금·선수금·검수 조건
출하·인수	이미 인식한 매출과 최종 이행을 구분	유보금·보증·최종 잔금의 조건
발전소 가동	공급자의 모든 매출이 이날 시작하는 것은 아님	가동 연계 지급·보증이 있을 때 추가 영향

회계의 일반 원칙은 IFRS 15의 수행의무·통제 이전·진행률 측정에 따른다. 특정 SMR 계약의 회계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13] [14]

“매출은 준공 후”와 “수주 즉시 매출”을 모두 피한다

기간에 걸친 인식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컨대 대체 용도가 없는 자산과 완료한 이행분에 대한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은 문단 35(c)의 결합 요건이다. 다른 기간 인식 요건도 존재하며, 어느 요건도 충족하지 않으면 통제 이전 시점에 인식한다.

[14]

제목에 대한 직접적인 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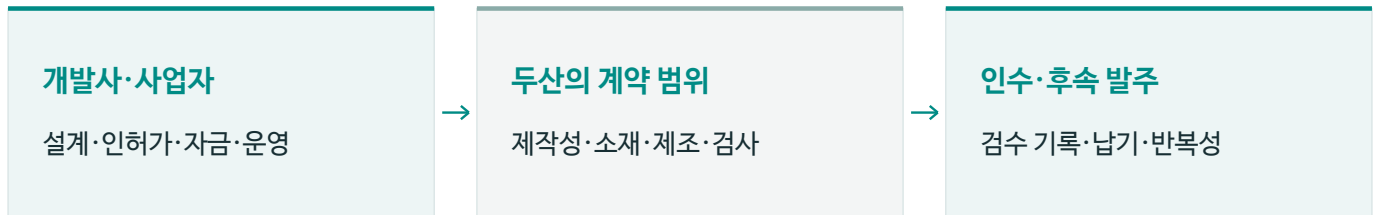
SMR 수주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따라 매출이 된다. 회사 전체에 적용할 단일 시작 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용역·제조·검수별 계약 조건이 매출의 시점을 정한다.



06 / MANUFACTURING VALUE CAPTURE

원자로 설계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제작을 맡는 회사다

공급망의 위치를 분리해야 시장 확대가 누구의 이익으로 남는지 보인다.



2024년 12월 회사 발표에는 당시 누적 원자로 34기와 증기발생기 124기 제작·공급 실적이 제시됐다. 이는 기존 원전 제조 경험의 근거이며, 2026년 누계나 SMR 인도 실적은 아니다. TerraPower와 Rolls-Royce SMR의 참여 사실은 그 경험을 새 설계의 공급망으로 확장하는 사례다. [10] [1] [2]

경쟁력의 원천	이익으로 연결되는 조건	남는 제약
설계와 제작의 연결	재작업을 줄이고 고객 검수에 맞춘 공정 확보	초도 설계 변경·추가 검증 비용
대형 기자재 제조 경험	허용 공차·검사·추적성·납기 준수	기존 대형원전 경험의 자동 전용은 불가
다수 개발사와 협업	한 설계·한 사업자의 지연 위험 분산	노형별 설비·인력·자격의 중복 투자
반복 생산	표준화·누적 공정 데이터·설비 활용	발주 공백과 고객 가격 인하 요구

TradeLens 판단

경쟁력은 SMR이라는 명칭보다 검증된 제작을 반복할 능력에 있다. 초도호기의 성실한 이행은 다음 기회를 넓히지만, 반복 발주와 충분한 가격이 있어야 그 경험이 수익으로 남는다.



07 / REVENUE & CASH LAB

매출 50을 인식해도, 현금은 30만 들어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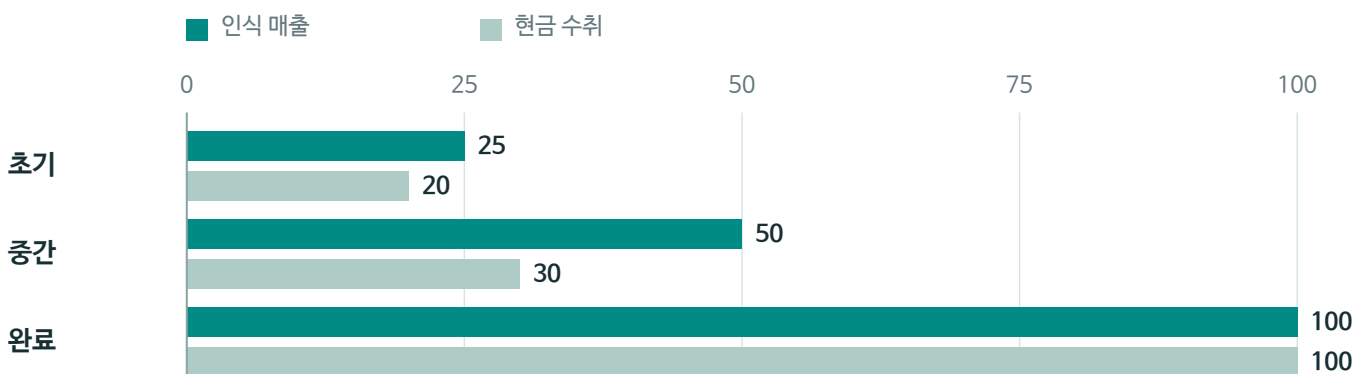
설명용 가정 A | 실제 두산 계약의 금액·지급 일정·회계처리를 추정한 모형이 아니다.

모형의 조건

계약대가 100, 예상 총원가 80. 기간 인식 요건을 충족하고 발생원가 투입법이 이행을 충실히 나타낸다고 가정한다. 각 단계에서 원가는 전액 현금 지급, 청구액은 즉시 회수하며 선수금·유보금·세금·이자·설비투자는 없다.

누적 매출과 현금 수취

계약대가=100 · 설명용 가정



누적 기준	초기	중간	완료
발생·지급 원가	20	40	80
진행률	25%	50%	100%
인식 매출	25	50	100
청구·현금 수취	20	30	100
미청구 차액	5	20	0
현금 수취 - 지급 원가	0	-10	20

계산: 매출 = $100 \times \text{발생원가} \div 80$. 미청구 차액 = 매출 - 청구액. 현금 수취 - 지급 원가는 회사의 공시 영업현금흐름 또는 잉여현금흐름과 다르다.

이 계산이 바꾸는 질문

매출 성장률뿐 아니라 “제작 중 누가 자금을 댈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동일한 이익 20인 계약도 중도금이 늦으면 운전자본과 조달 부담이 커진다.



08 / ACTUAL CASH-CONVERSION EVIDENCE

기존 공시에도 이익과 현금의 시차가 드러난다

2026년 1분기 별도 현금흐름 사례. 상반기 현금흐름이나 SMR 단독 현금흐름이 아니다.

2026년 1분기 · 별도	십억원	해석
분기순손실	-25.759	발생주의 손익의 출발점
조정	+168.693	공시 현금흐름표의 비현금 등 조정
영업 자산·부채 변동	-720.353	회수·지급 시점과 운전자본 등의 효과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577.419	위 세 항목의 합계
이자·배당·법인세 순현금	-50.923	$1,572 - 46,483 + 0.909 - 6.921$
영업활동 현금흐름	-628.342	별도 현금흐름표의 최종 영업현금

출처: 2026년 1분기 분기보고서, 별도 현금흐름표 및 관련 주석. 백만원을 십억원으로 환산. 같은 분기 연결 영업현금흐름은 -565.522십억원이며 별도와 합산하지 않는다. [11]

SMR 부진의 증거가 아니라, 사업모델의 점검 기준이다

분기 현금 유출만으로 연간 유동성이나 SMR 손실을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대형 기자재 사업을 확장할 때는 선투입 원가, 미청구 금액, 매입채무 지급과 고객 선수금의 조합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상반기 손익 개선이 이 현금 시차를 자동 해소했다고도 볼 수 없다.

다음 결산에서 볼 것	판단 방향
미청구공사·매출채권과 선수금	공정 진행이 청구·회수로 따라오는가
연간·최근 12개월 영업현금흐름	계절성 이후에도 현금 유출이 지속되는가
별도 차입·이자·현금과 설비투자	SMR 증설과 기존 프로젝트를 함께 감당하는가

현금화의 기준

수주 확대의 질은 매출 인식보다 한 단계 뒤인 청구·수금에서 확인된다. 연결 이익과 모회사의 투자 가능 현금 은 끝까지 구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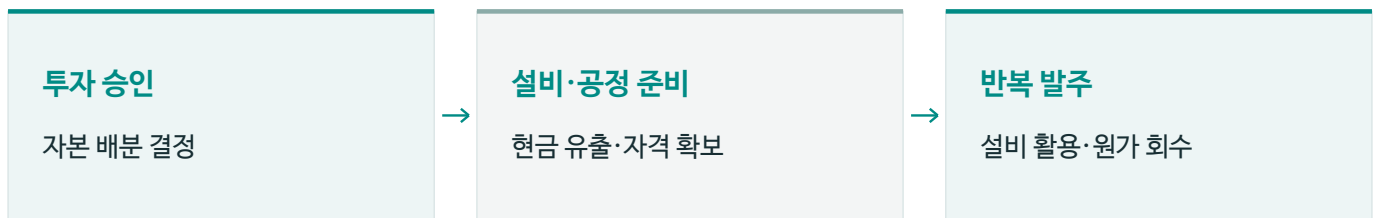


09 / CAPITAL ALLOCATION

공장이 준비되는 속도와 발주 속도가 맞아야 한다

투자 승인 → 집행 → 가동 가능 → 고객 검수 → 반복 생산을 구별한다.

회사의 이사회 운영현황에는 2025년 12월 17일 “SMR 신축 공장 투자 승인”이 기재돼 있다. 이는 제조 기반 확장을 위한 자본배분 결정이다. 그러나 승인 사실만으로 완공·가동률·수주 확보 또는 투자수익률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9]



지출·의무	매출보다 앞설 수 있는 이유	경제성의 확인 지표
설비·공장 투자	제작 착수 전 장비·건물·시험능력 필요	집행액·준공·사용 가능 시점·유지투자
전문인력·공정 개발	설계별 자격과 작업 절차를 선행 준비	직접공수·재작업·자격 취득과 검수
재공품·장주기 소재	중도금 전 소재·외주·제작비 투입	선수금·미청구공사·재고 회전과 지급 시점
보증·이행 책임	인수 이후에도 성능·하자 의무가 잔존	유보금·충당부채·보증 해제와 잔금

발주가 늘어도 자본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

여러 노형의 제작 수요가 분산되면 한 고객의 지연 충격은 줄 수 있다. 동시에 노형마다 다른 장비·검사·인력이 필요하면 중복 투자도 늘 수 있다. 명목 생산능력보다 실제 공정 호환성과 수주 공백을 함께 봐야 한다.

자본배분의 원칙

대규모 증설 자체보다 “계약상 확보한 물량에 맞춰 단계적으로 집행하고, 회수 가능한 가격을 받는가”가 중요하다. 모듈·노형이 다른 생산능력을 단순 합산하지 않는다.



10 / MARGIN & COST-TO-COMPLETE L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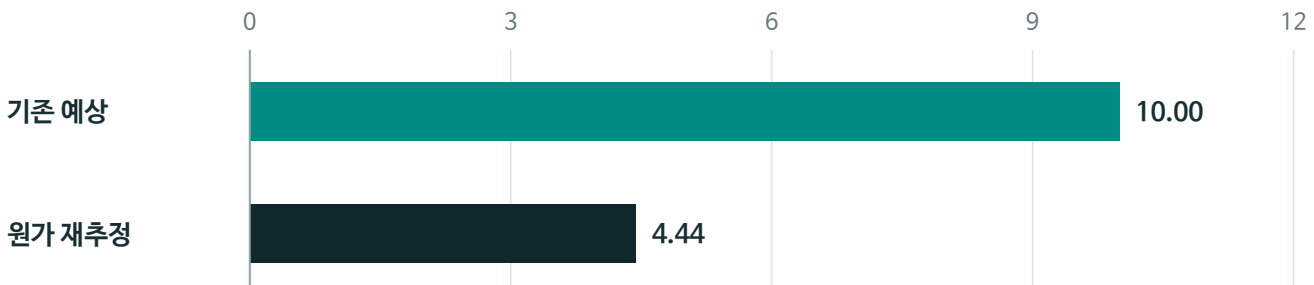
초도 제작비 100이 늘면 이익 20의 절반이 사라진다

설명용 가정 B | 모형 A의 계약대가 100을 유지하고 예상 총원가만 80에서 90으로 변경한다.

발생원가 40인 시점	기존 예상	원가 재추정
계약대가	100	100
예상 총원가	80	90
원가 기준 진행률	50.0%	44.4%
누적 인식 매출	50.00	44.44
누적 인식 이익	10.00	4.44
완료 시 총이익	20.00	10.00

같은 발생원가 40에서의 누적 이익

설명용 가정



계산: 재추정 매출 = $100 \times 40 \div 90 = 44.44$, 누적 이익 = $44.44 - 40 = 4.44$, 기존 대비 누적 매출·이익 조정은 -5.56 이다. 실제 회사 마진 또는 손실 전망이 아니다.

반복 생산의 이익을 초도호기에 미리 적용하지 않는다

설계 변경, 추가 검사, 원재료·외주·제작업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하면 매출 증가와 별개로 이익은 줄 수 있다. 원가 상승을 고객에게 넘길 권리, 추가 업무의 승인, 지체상금·보증 범위가 중요하다. 후속 물량의 학습효과도 실제 발주와 가격 조건이 있어야 실현된다.

TradeLens 판단

SMR의 제조 기회는 유효하지만, 수익성은 계약한 가격보다 최종 예상원가에 더 민감할 수 있다. 공정률 상승과 마진 개선을 같은 의미로 읽지 않는다.



개발사의 8기 계획을 두산의 8기 수주로 읽지 않는다

초기 제작 계약의 다음 가치는 반복 발주에 있지만, 그 연결고리를 생략할 수는 없다.

TerraPower와 Meta의 1월 협약은 최대 8기의 Natrium 개발을 대상으로 한다. 초기 2기 개발 지원과 추가 최대 6기의 전력 권리를 구분하며, 초기 공급은 이르면 2032년이라는 회사 목표다. 이는 초도 Kemmerer 기자재 계약과 별개의 개발 계획이다. [8]

수요가 발주로 바뀌려면	두산에 필요한 다음 증거
부지·인허가·자금이 연결돼야 함	특정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 일정
두산의 품목과 공급 경계가 정해져야 함	제작계약·변경계약·발주서 또는 구속력 있는 범위
단가와 책임 배분이 확정돼야 함	원가 전가·현지화·검사·보증·지체상금 조건
제작 창구와 수금이 맞아야 함	장주기 자재 승인·생산 배정·중도금과 선수금

반복 발주가 늘어도 공급자의 몫은 달라질 수 있다

Rolls-Royce SMR은 이원 공급과 영국·체코 현지화를 추진한다. 따라서 현지 협력사 활용이 두산의 공급 범위를 넓힐 수도, 일부 제조 가치를 현지로 옮길 수도 있다. 70% 초과 영국 조달 목표를 근거로 나머지 30%를 두산의 몫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2] [6]

핵심 변수

중요한 것은 파이프라인의 기수보다 “반복 가능한 동일 범위의 계약이 얼마나 자주, 어떤 가격과 수금 조건으로 들어오는가”다.



12 / SCENARIOS & FALSIFICATION

상업화의 진전은 인정하되, 확대 경로는 구분한다

아래는 확률·주가 전망이 아닌 조건부 사업 시나리오다.

시나리오	관측될 조건	회사 경제성에 주는 의미
기본 · 선별적 이행 확대	TerraPower 제작 진행, Rolls-Royce 사전업무 진척, 기존 사업 유지	SMR 매출 기회는 확장되나 원가·투자·수금은 계속 점검
확대 · 반복 발주 가시화	후속 품목·계약 확정, 표준화, 충분한 선수금·중도금	공정 학습과 설비 활용이 원가 회수·현금 창출로 연결될 여지
지연 · 준비비가 앞섬	설계·허가·자금 일정 지연, 발주 공백, 인력·설비 선투입	매출보다 비용·운전자본·차입이 먼저 증가
가격 압력 · 현지화 심화	반복 계약에서 단가 인하 또는 공급 범위 축소	시장 확대에도 회사에 남는 이익은 제한될 수 있음

현재 판단을 강화하는 증거

초도 제작의 공정·검수 이정표, 동일 품목의 후속 발주, 예상 총원가의 안정, 청구·수금의 동행이 함께 나타나는가를 본다. 원전 가동 뉴스 하나보다 공급계약의 이행과 현금 전환이 더 직접적인 증거다.

판단을 약화시키는 증거

장기적인 후속 발주 공백, 반복 재작업·원가 상향, 현지화에 따른 범위 축소, 미청구 금액과 별도 순차입 부담의 지속 증가가 나타나면 성장의 속도보다 자본 회수 조건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 이는 현재 발생 사실이 아니라 향후 검증 기준이다.

분석의 경계

수주잔고 확대만으로 긍정 판단을 강화하지 않는다. 계약 이행·원가·현금의 세 축이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



13 / OUTLOOK & MONITORING

SMR의 가치는 “받은 주문”보다 “남긴 현금”에서 완성된다

두산에너지빌리티의 다음 확인 지점을 계약·제조·재무로 연결한다.

점검 대상	먼저 볼 공시·발표	해석의 기준
TerraPower 이행	기자재 제작 착수·주요 검수·인도	발전소 일정과 공급자 공정의 일치 여부
Rolls-Royce SMR 전환	두산의 품목별 후속 제조 발주	전략 공급사 선정에서 확정 역무로 이동하는가
제조 기반·투자	설비 집행·준공·가동 준비·검사 역량	증설 속도와 구속력 있는 수요의 균형
원가·수익성	총예정원가·변경계약·보증·재작업	반복 생산이 실제 단위원가·마진을 개선하는가
현금·재무	선수금·미청구·채권·별도 차입·영업현금	이행한 매출을 언제 회수하며 누가 자금을 대는가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

01 무슨 변화인가

일부 설계 협력이 실제 제조 발주로 전환된다.

02 왜 중요한가

발전소 가동보다 앞선 공급자 매출의 경로가 열린다.

03 누가 경제적 효과를 얻는가

품질·납기와 책임 범위를 지키며 적정 대가를 회수하는 제조사다.

04 무엇을 확인하는가

후속 발주와 예상원가, 청구·수금·자본 회수의 연속성이다.

TradeLens 최종 판단

두산에너지빌리티의 SMR 사업은 제작 계약으로 전환되는 실질적 진전을 보였다. 따라서 “아직 전부 먼 미래의 이야기”로만 볼 수는 없다. 반면 개발사 계획이나 수주잔고 전체를 SMR 실적으로 연결하는 해석도 지지하지 않는다. 사업가치는 범위가 명확한 계약을 반복 이행하고 원가·운전자본·설비투자를 회수하는 능력에 있다.

분석 기준일 2026.10.03. 본 보고서의 판단은 사업구조에 관한 것이며 매수·매도 의견, 매매 시점, 목표주가·적정주가 및 개인별 투자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



14 / SOURCE REGISTER

주장의 근거를 원문까지 연결한다

본문의 청록색 출처번호와 자료명·‘원문 열기’를 누르면 해당 원문으로 이동한다.

01. 두산에너지빌리티 TerraPower SMR 핵심 기자재 제작 계약 2026.08.14 · 회사 보도자료 (Publicnow 배포) · 제작 범위·2024년 검토 계약	원문 열기
02. Rolls-Royce SMR 핵심 원자로 계통 전략 공급사 선정 2026.05.27 · 회사 발표 · 사전제작·설계 완성·이원 공급 체계	원문 열기
03. 미국 NRC Kemmerer 건설허가 CPAR-1 발급 2026.03.09 · 규제기관 · 건설허가 발급 사실	원문 열기
04. 미국 에너지부 Natrium 건설허가와 후속 사업 단계 2026.03.09 · 정부 설명 · 기술·허가 단계·실증사업	원문 열기
05. Rolls-Royce SMR Wylfa 초기 3기 추진 계약 2026.04.13 · 회사 발표 · 부지별 설계·핵심부품 조달 추진	원문 열기
06. Rolls-Royce SMR 영국 공급망 프로그램과 현지화 목표 2026.09.16 · 회사 계획 · 향후 1년 최대 £1.4bn 기획·영국 조달 70% 초과 목표	원문 열기
07. Rolls-Royce SMR ŠKODA JS 제어봉 구동장치 계약 2026.09.23 · 회사 발표 · 부품별 공급 범위의 구분	원문 열기
08. TerraPower Meta와 최대 8기 Natrium 개발 협약 2026.01.09 · 개발사 계획 · 초기 2기 개발·추가 6기 전력 권리·2032년 이후 목표	원문 열기
09. 두산에너지빌리티 이사회 운영현황 2025.12.17 결의 · 회사 지배구조 자료 · SMR 신축 공장 투자 승인	원문 열기
10. 두산에너지빌리티 원전 주기기 제작 실적 설명 2024.12.15 · 회사 발표 · 당시 누적 원자로 34기·증기발생기 124기	원문 열기
11. 두산에너지빌리티 2026년 1분기 분기보고서 2026.05.14 · KRX 공시 · 별도 현금흐름표·주석 23 수석·주석 28 현금흐름	원문 열기
12. 뉴시스 상반기 영업이익 5,478억원·수주잔고 26조원 돌파 2026.07.27 · 회사 발표를 인용한 보도 · 연결 손익·에너지빌리티 부문 수주	원문 열기
13. IFRS Foundation IFRS 15 수익 인식의 기본 원칙 현행 기준 안내 · 수행의무·통제 이전·적절한 진행률 측정	원문 열기
14.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기간에 걸친 수익·지급청구권 2018.03 · 해석위원회 결정 · IFRS 15 문단 35(c)·37 일반 원칙	원문 열기

자료 적용: 제작 계약·공급망 계획은 각 회사 발표, 재무는 표시된 결산 범위와 시점 기준이다. Publicnow는 회사 보도자료 배포본이며 뉴시스는 회사 실적을 인용한 보도다. IFRS 자료는 회계 일반 원칙으로 사용한다.



작성 기준·면책고지·보고서 이용 안내

확인된 사실, 회사 계획, TradeLens의 판단과 설명용 계산을 구분한다.

항목	적용 기준
분석·자료 시점	분석 기준일 2026.10.03. 계약·계획은 발표일별로, 연결 손익은 2026년 상반기, 현금흐름은 2026년 1분기 별도 기준으로 구분한다.
회계·사업 범위	에너지빌리티 부문 수주와 연결 손익은 별개다. 연결·별도 수치를 합산하지 않으며 어느 범위도 SMR 단독 실적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계획의 구분	TerraPower 제작 계약, Rolls-Royce SMR 사전제작 업무, 개발사의 발전소 계획과 현지화 목표를 서로 다른 단계로 취급한다.
모형 A · 8쪽	계약대가 100·총원가 80·누적 청구 20/30/100은 설명용 가정이다. 기간 인식·투입법 요건 충족, 즉시 수금·원가 전액 지급을 전제한다.
모형 B · 11쪽	발생원가 40에서 예상 총원가를 80→90으로 바꾸는 민감도다. 실제 SMR 계약가격·마진·원가 또는 손실 전망이 아니다.
단위·투자 범위	억원=1억원, 십억원=10억원. 반올림 전 수치로 계산한다. 설명용 현금은 기업 공시 영업현금·잉여현금과 다르며 세금·이자·CAPEX 등을 제외한다.

면책고지

본 보고서는 산업 및 기업의 사업구조·성장성·수익성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매수·매도 의견·시점, 적정가격·목표가격 및 이용자별 투자자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록 정보와 분석은 작성일 기준이며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망·가정 및 예시 계산에는 불확실성이 있으며 원금이나 투자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판단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계 법령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트레이드렌즈는 본 보고서 이용에 따른 투자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 및 이용 제한

본 보고서의 서술·도표·디자인·편집 및 구성 중 트레이드렌즈가 권리를 보유한 부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개인 열람·보관 외에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편집·번역·재가공하거나 복제·전송·재게시·재배포·판매할 수 없습니다. 유료·무료 제공 및 파일·화면 캡처 등 형태를 불문하며 로고·출처·권리표시를 제거하거나 제3자 명의로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이용과 제3자 자료의 개별 이용허락조건은 그에 따릅니다. 공유는 트레이드렌즈 공식 게시페이지의 원문 링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